

친구간 갈등해결방식에 대한 자기 보고와 실제 행동의 관계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report, Hypothetical Interview, and Observation about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between Friends

연세대학교 어린이생활지도연구원
책임연구원 김 송 이

Child Development Research Institute
Researcher : Song Yee Kim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논의 및 결론 |
| 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III. 연구결과 및 해석 | |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firstly to assess the differences of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between friends according to children's peer status, and secondly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of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measured by self-report, hypothetical interview, and observation methods. Thirty-four dyads in elementary 5th graders were selected according to peer status and friendship.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t-test and Spearman's correl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children's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differed according to their peer status. Specially, popular children reported using and experiencing compromising/integrating strategies more than rejected children did. Rejected children reported using and experiencing dominating strategies more than popular children did. Secondly, there were meaningful correlations between compromising/integrating and dominating strategies, as measured by self-report, hypothetical interview, and observation methods. However, no relations emerged among avoiding, obliging, and intervention requesting strategies, as measured by self-report, hypothetical interview, and observation methods.

주제어(Key Words): 갈등(conflict), 갈등해결방식(conflict resolution strategy), 자기보고(self-report), 가상적 상황에서서의 면접(hypothetical interview), 관찰(observation)

1. 서론

아동들의 일상생활에서 또래와의 갈등은 빈번히 일어나는 사건으로, 이러한 또래 갈등의 경험이 아동에게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취업모의 증가, 형제 수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아동들은 일찍부터 또래와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해야 하는 과업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최근 아동들간의 따돌림 현상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초기 중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중재를 위해서는 또래간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이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러한 따돌림 당하는 아동들에게 친한 친구를 사귀게 하는 것이 또 다른 측면에서 따돌림 당하는 아동들의 보호 요인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Hodges, Boivin, Vitaro & Bukowski, 1999)이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또래에게 거부되는 아동의 특징 중의 하나가 친한 친구가 없거나 친구 관계의 질이 좋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따돌림 당하는 아동에게는 이중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친구간에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들이 어떻게 해결하는지 구체적인 해결방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특히 거부된 아동들의 경우 친구와의 갈등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들간에 목표, 의도, 욕구, 혹은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갈등은 사소한 말다툼에서 심각한 갈등까지 다양하다. 대인간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갈등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잘 해결하는지가 그 관계를 유지하고 더 나아가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는데 있어 중요하다. 특히 친구 관계에서도 다른 사회적 관계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갈등상황이 항상 잠재하고 있는데, 친구간의 갈등이 잘 해결되면 갈등은 친구간에 공통된 근거를 발견하게 하여 친구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이것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 친구 관계가 종결될 수도 있다(Hartup & Laursen, 1993).

아동은 친구간에 갈등이 발생했을 때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해결방식을 사용하게 된다. 이러한 갈등해결방식은 갈등 쟁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외적 반응으로, 여러 연구들에서 갈등해결전략, 갈등 관리, 갈등 행동 등의 용어와 혼용되어 사용되어 왔다. Pollard (1985)는 갈등해결방식이란, 아동이 친구관계에서 서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자기의 이해를 방어하고 고양시키기 위하여 갈등상황에서 상호작용을 하는 방식들이라고 정의하였다(한제인, 1994, 재인용).

어린 아동은 주로 단순한 주장과 상대방의 요청에 대한 단순한 거절을 사용하여 갈등을 해결하고, 공격적인 행동이나 위협 등을 자주 사용하지 않는다. 이에 반해 학령기 아동은 다른 아동의 주장과 요청에 저항하거나 거절하는 말을 하며,

다른 아동을 무시하기도 한다. 이유를 대거나 규칙을 언급하며 반박을 하기도 하고, 대안을 제시하거나 욕설을 퍼붓기도 하며, 위협하는 행동을 하기도 한다. 이처럼 학령기 아동들은 어린 아동들에 비해 또래간에 갈등이 진행되는 동안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더 다양한 해결방식을 사용한다.

이러한 또래간 갈등해결방식은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되어 왔다. 먼저, 또래갈등 상황에서 아동이 사용하는 해결방식은 가상적인 상황에서 연구되었다. Rose와 Asher(1999)는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가장 친한 친구 사이에서 서로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30개의 가상적인 갈등상황을 제시하고, 각 상황에서 자신이 사용할 것 같은 갈등해결방식을 보고하게 하였다. 이 연구에서 갈등해결방식은 조절/절충, 자신의 이해관계 주장, 언어적 공격, 상황 회피, 친구 관계의 종결을 위협하는 적대적 전략의 5가지 하위 범주로 측정되었다. Chung과 Asher(1996)도 초등학교 4, 5,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가상적인 상황에서 아동이 사용할 것 같은 해결방식을 친사회적 전략, 적대/강압적 전략, 독단적 전략, 소극적 전략, 그리고 성인 의존적인 전략의 5가지 범주로 살펴보았다.

국내에서는 한제인(1994)이 가상적인 또래갈등상황을 이용하여 초등학교 4, 5, 6학년 아동이 사용하는 전략을 살펴보았다. 친구가 화를 낼 때 같이 화를 내는 분노 전략, 친구가 왜 화를 내는지 물어보는 등 갈등 이전 관계로 돌아갈 때까지 계속 이야기를 하는 침착한 대화 전략, 친구와의 갈등상황을 회피하거나 이에 굴복해버리는 회피/위축 전략의 3가지 범주로 나누어 제시한 후, 아동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사용하는 전략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양면성 아동은 분노 전략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인기 아동은 침착한 대화 전략을, 배척 아동은 회피/위축 전략과 분노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가상적인 갈등상황에서의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또래로부터 거부된 아동은 인기있는 아동보다 통제적인 전략과 성인에게 의존하는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함을 알 수 있다.

가상적인 상황 외에도 갈등해결척도를 사용하여 대인간 갈등상황에서 개인이 사용하는 갈등해결방식이 연구되어 왔다. 특히 Rahim(1983)은 조직체 내에서 대인관계의 갈등해결방식을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고, 갈등해결방식을 협력, 양보, 지배, 회피, 절충의 다섯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배선영(1999)과 정선진(2000)도 갈등해결척도를 사용하여 초등학교 5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갈등해결전략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여아가 남아보다 친한 친구 관계에서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절충 및 협력, 회피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 또한 친한 친구와의 갈등상황에서 절충 및 협력, 회피, 양보로 해결하는 전략을 많이 사용할수록 친구의 다양한 사회정서적

기능에 대한 지각이 높고 친구에 대한 만족감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갈등해결방식은 실제 관찰을 통해서도 연구되었다. 김승이와 박경자(2001)는 초등학교 5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또래갈등상황에서 아동들이 사용하는 갈등해결방식을 관찰하였다. 그 결과, 친구쌍들은 갈등이 발생했을 때 주로 이유 설명하기 방식을 많이 사용하여 해결하려 하였으며(45%), 자기 의견 고수하기(21%), 대안제시/타협하기(11%), 양보하기(11%)의 순으로 갈등해결방식을 사용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의 갈등해결방식은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되어 왔기 때문에 친구간 갈등해결방식에 관한 선행 연구 결과들을 통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문헌 고찰에서도 나타나듯이, 갈등해결방식은 연구 방법상의 용이함 때문에 주로 가상적인 상황에 대한 면접이나 갈등해결척도를 사용하여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아동이 가상적인 갈등상황에서 사용할 것이라고 응답하거나 질문지에 응답한 갈등해결방식이 실제 또래와의 갈등상황에서 이들이 사용하는 해결방식과 동일한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우리가 아동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에서 실제 아동의 행동을 관찰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르므로, 많은 영역에서 자기보고식 질문지나 가상적 상황에서의 반응을 연구하고 있다. 이처럼 특정 상황에서 아동의 실제 행동을 측정할 결과와 아동이 그 상황에 대해서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이 할 것 같은 반응을 보고한 결과 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 것인가? Iskandar, Laursen, Finkelstein과 Fredrickson(1995)의 연구 결과, 아동은 실제 또래와의 갈등상황에서 사용하는 방식보다 가상적인 상황에서 더 높은 수준의 협상을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실제로 아동들이 사용하는 갈등해결방식과 이들의 자기 보고와의 관련성을 검증함으로써 아동의 자기 보고가 실제 행동과 얼마나 유사한지 그 정도를 알아보고 아동들이 응답한 자기 보고의 타당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위의 문헌 고찰에서도 일부 제시된 것처럼 갈등해결방식은 아동의 또래 지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다. 즉 또래로부터 인기가 있는 아동은 또래 갈등의 발생 빈도가 낮으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비언어적인 저항보다는 이유 설명하기와 같은 언어적 저항을 더 많이 사용한다(Putallaz, Hellstern, Sheppard, Grimes & Glodis, 1995). 이에 반해 또래로부터 인기가 없는 아동은 또래 갈등을 자주 경험하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비언어적인 저항과 통제적인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상적인 갈등상황과 갈등해결척도를 통해 나타난 갈등해결방식에 대한 자기 보고, 그리고 실제 갈등해결방식에서 또래 지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특히 거부된 아동이 인기있는 아동과 어떠한 차이가 나는지는 알아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세가지 방법간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친구간 갈등해결척도에서 아동이 보고한 갈등해결방식은 아동의 또래 지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둘째, 친구간의 가상적인 갈등상황에서 아동이 보고한 갈등해결방식은 아동의 또래 지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셋째, 구조화된 갈등상황에서 친구간에 실제로 사용한 갈등해결방식은 아동의 또래 지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넷째, 갈등해결척도와 가상적인 갈등상황에서의 자기 보고 및 구조화된 또래 갈등상황에서 실제 갈등해결방식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 시내에 중류 계층이 거주하는 지역의 초등학교 한 곳을 임의 선정하여, 그곳의 5학년 아동 34쌍을 대상으로 하였다. 먼저 초등학교 5학년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친구 관계를 조사하여 친한 동성 친구를 3명 지명하게 하고, 상호 친구로 지정한 아동 쌍을 친구 쌍으로 선정하였다. 초등학교 5학년 아동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아동 중기 및 초기 청소년기가 동성 또래 및 친구와의 관계가 중요한, 단짝친구관계 시기라는 지적(김경희, 1986)에 기초한 것이다. 또한 선행연구들(DeHart, 1999; Hartup, Laursen, Stewart & Eastenson, 1988)에 따르면 갈등은 그 대상이 상호적 친구인지, 친구가 아닌 서로 아는 사이인지, 모르는 또래인지 등에 따라 갈등해결방식에 차이가 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호적 친구관계인 두 아동간의 갈등해결방식을 초점으로 보기로 하였다.

그리고 Coie와 Dodge(1983)의 또래지명 절차를 사용하여 각 학급 내에서 아동의 또래 지위를 인기, 보통, 거부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난 뒤, 연구대상 쌍을 선정하기 위해서 상호 친구로 지정한 아동 쌍 중에서 주 초점 아동이 인기 아동과 거부 아동인 경우를 뺐고, 또한 이들의 친구로 선정된 아동의 또래 지위를 보통 지위의 아동으로 선정하였다. 이는 초점 아동 뿐 아니라 상대 아동의 또래 지위에 따라라도 갈등 상황에서의 행동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통제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인기/보통 아동쌍이 20쌍, 거부/보통 아동쌍이 14쌍, 총 34쌍의 아동이 연구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2. 연구 도구

1) 친구간의 갈등해결척도

본 연구에서는 배선영(1999)의 초등학교생 친구 관계의

갈등해결전략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6개 문항으로, 친한 친구와 의견 충돌이 생기거나 다툰 때의 갈등상황을 가정하도록 하고, 각 문항에 대해 5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0: 그렇지 않다~4: 아주 많이 그렇다). 하위 척도는 절충/협력, 회피, 지배, 양보의 4개로 구성되어 있다.

협력은 자신과 상대 양쪽 모두에 대해 관심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양쪽이 수용할만한 해결책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며, 절충은 양쪽이 모두 어느 정도씩은 포기하고 상호 수용가능한 해결책을 성취하는 것으로 양쪽 모두가 관심을 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양보는 자신에 대한 관심의 정보가 낮고 상대에 대한 관심 정도가 높은 것으로 서로의 차이를 최소화하려고 시도하고 상대의 관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배는 자신에 대한 관심의 정도가 높고 상대에 대한 관심의 정도는 낮은 것으로 승-패 지향적이거나 자신의 입장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다. 회피는 자신과 상대 모두에 대하여 관심의 정도가 낮은 경우이다.

2) 가상적인 갈등상황에서의 면접

아동들이 친구와의 가상적인 갈등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Chung과 Asher(1996)가 초등학교 4, 5, 6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상적인 갈등상황 및 갈등해결전략을 사용하였다. 원 도구는 12개의 갈등상황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상황에서 어떤 전략을 취할 것인지 아동에게 질문하여 5가지 전략(친사회적 전략, 적대적/강요적 전략, 자기주장 전략, 수동적 전략, 성인추구 전략) 중 하나에 응답하게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는 이 도구를 우리나라 문화에 맞게 수정하여 친구와의 갈등상황은 3가지, 전략은 4가지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첫 번째 상황은 친구에게 게임기(인형)를 빌려주었는데 받고 나니 망가져 있을 때, 두 번째 상황은 친구가 준 생일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세 번째 상황은 친구가 다른 아이와 컴퓨터 게임을 하는 중에 기다리다가 자신도 하겠다고 친구에게 말했지만 친구가 건성으로 대답할 때였다. 이러한 각 상황에서 아동이 할 것 같은 반응은 다음의 네가지 각각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1점)에서 아주 많이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먼저 공격적 반응은 적대적이거나 강요적인 반응, 신체적 공격성, 언어적 위협을 포함하는 것이었으며, 회피 반응은 양보하거나 회피하는 수동적인 반응, 절충/협력 반응은 양방 모두의 욕구나 흥미를 충족하는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자신의 바램을 나타내는 요청을 우호적으로 하는 것, 중재 요청 반응은 다른 아이나 부모,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되었다.

3) 구조화된 갈등상황에서의 갈등해결방식

아동들이 실제 또래와의 갈등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를 관찰하기 위해서 먼저 교사 연구실을 실험실로 구성한 뒤, 연구 절차에 의해서 선정된 친구 쌍을 점심 시간을 통해서 실험실로 내려오게 하였다. 친구간에 갈등을 유발하기 위해서 고안된 도미노 게임을 연구대상 쌍에게 제시하였다. 아동 쌍에게 도미노 구성을 위한 도안을 제공하고 두 아동이 서로 상의 하에 한 가지 도안을 정해서 도안대로 도미노로 구성을 한 뒤, 최종적으로 누가 도미노를 쓰러뜨릴지 결정하게 하였다. 이러한 도미노 게임을 하는 동안, 아동들이 인식하지 못하게 비디오 녹화를 하였고, 녹화된 테이프를 추후 분석하였다.

녹화된 내용 중에서 분석 단위가 되는 또래 갈등 에피소드를 선정하였다. 갈등 에피소드는 '아동 1이 아동 2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 말이나 행동을 시도하고, 아동 2가 언어적이거나 비언어적으로 반대하거나 저항하는 경우'에 시작된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갈등 에피소드의 종결 시점은 Eisenberg와 Garvey(1981)의 기준에 따라 '갈등 상황에서 마지막 반대 행동이 일어난 시점'으로 보고 갈등이 분명하게 해결되었을 때, 또는 다른 활동을 위해서 분쟁을 분명하게 포기하였을 때, 혹은 협상이나 반대와 같은 행위가 20초 동안 없거나 활동에서 분명한 변화가 있을 때로 보았다.

이러한 갈등 에피소드에서 보여진 행동과 언어를 전사한 후, 아동별로 구조화된 갈등상황에서 사용하는 갈등해결방식을 절충/협력, 회피, 지배, 양보, 중재 요청의 5가지 범주로 측정하였다. 이러한 관찰 범주는 김송이와 박경자(2001)의 갈등해결방식을 기초로 본 연구에 맞게 재구성한 것이다.

절충/협력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유를 설명하거나 자신의 원래 의견을 수정하거나 대안을 제시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회피는 상대의 질문이나 의견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도 없이 모른척하고 자신이 하던 과제를 계속하거나 자리를 떠나거나 주의를 딴 곳으로 돌려서 갈등 주제에서 벗어나려는 행동을 의미한다. 지배는 새로운 사실이나 정보를 추구하지 않고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자신의 원래 의견을 계속 주장하는 말이나 행동, 혹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대 아동에게 신체적, 언어적인 해를 가하는 행동 또는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책상을 치는 등의 행동을 의미한다. 양보는 자신의 의견을 더 이상 주장하지 않고 상대 아동의 의견에 따르는 말이나 행동을 의미하며, 중재 요청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인이나 다른 또래에게 질문을 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말이나 행동을 의미한다.

관찰자간 신뢰도를 구하기 위해 전체 관찰대상 중에서 인기 아동 3명, 거부 아동 3명(17.6%)을 무선으로 선정하여 갈등해결방식에 대한 관찰자간 일치도를 구하였다. 그 결과 94%의 높은 일치도를 보였다.

3. 자료분석

친구간 갈등해결척도와 가상적인 갈등상황에서 아동이 보고한 갈등해결방식, 그리고 구조화된 또래갈등상황에서 친구간에 실제로 사용한 갈등해결방식이 아동의 또래 지위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세가지 측정방법상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Spearma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집단의 사례수가 작아서 Pearson의 상관분석이 아닌 Spearma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해석

1. 친구간 갈등해결척도

갈등해결척도를 통해 아동들이 보고한 친구간 갈등해결방식이 어떠한 분포를 이루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였다.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아동들은 전체적으로 친구간에 갈등이 유발되었을 때, '절충/협력' ($M=2.59$)과 '회피' ($M=2.51$) 방식을 '양보' ($M=2.10$)보다 조금 더 많이 사용하였고, '지배' ($M=1.46$) 방식은 가장 적게 사용한다고 보고하였다.

아동의 또래 지위에 따른 갈등해결방식의 평균 점수를 비교한 결과, '절충/협력'과 '양보' 방식을 거부된 아동보다는 인기있는 아동이, '지배' 방식은 거부된 아동이 인기있는 아동보다 더 많이 사용한다고 보고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렇게 아동들이 보고한 갈등해결방식이 아동의 또래 지위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집단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1> 또래 지위별 갈등해결방식의 평균과 표준편차

		인기 아동 (n=20)	거부 아동 (n=14)	전 체 (N=34)
갈등해결 척도	회피	2.54(0.94)	2.46(1.23)	2.51(1.05)
	절충/협력	2.76(0.66)	2.34(0.89)	2.59(0.78)
	양보	2.25(1.17)	1.89(1.05)	2.10(1.12)
	지배	1.34(0.75)	1.64(0.60)	1.46(0.70)
가상적인 갈등상황	공격적 반응	1.65(0.73)	1.61(0.74)	1.63(0.72)
	회피 반응	2.43(0.73)	1.96(0.63)	2.24(0.72) ⁺
	절충/협력 반응	3.55(0.48)	3.18(0.87)	3.40(0.68)
	중재 요청 반응	2.02(0.72)	2.07(0.73)	2.04(0.71)
구조화된 갈등상황	회피	0.02(0.07)	0.06(0.08)	0.04(0.07)
	절충/협력	0.75(0.21)	0.57(0.18)	0.68(0.21)*
	양보	0.10(0.14)	0.07(0.08)	0.08(0.12)
	지배	0.11(0.15)	0.28(0.20)	0.18(0.19)**
	중재 요청	0.01(0.06)	0.02(0.05)	0.02(0.05)

() 안은 표준편차임.

⁺ $p < .10$, * $p < .05$, ** $p < .01$ 임.

2. 가상적인 갈등상황에서의 갈등해결방식

아동이 친구와의 가상적인 갈등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지를 면접한 결과, 전체적으로 연구대상 아동들은 '절충/협력 반응'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M=3.40$), 그 다음으로 '회피 반응'($M=2.24$), '중재 요청'($M=2.04$)의 순이었으며, '공격적인 반응'은 가장 적게 사용할 것이라고 보고하였다(<표 1>참고). 친구와의 가상적인 갈등상황에서 아동의 해결방법이 아동의 또래 지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유의도 .10 수준에서 인기있는 아동이 거부된 아동보다 갈등상황에서 회피하는 반응을 더 많이 사용할 것이라고 보고하였다($t_{32}=1.909$, $p < .10$).

3. 구조화된 갈등상황에서의 실제 갈등해결방식

구조화된 갈등상황에서 실제로 친한 친구간에 갈등이 발생했을 때 연구 대상 아동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하는지를 관찰하였다. 여기서 제시한 갈등해결방식의 점수는 비율 점수로서, 각 아동이 친구간에 갈등이 발생했을 때 사용한 5가지 해결방식들을 사용하는 상대적 비율을 의미한다.

<표 1>에서 보듯이 전체적으로 아동들은 친구간에 실제로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 '절충/협력' 방식을 67.8% 정도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지배' 방식(18.3%)을 사용하였고, '양보' (8.5%), '회피' (3.7%), '중재 요청' (1.8%)의 순이었다. 이러한 실제 갈등해결방식이 아동의 또래 지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한 결과, '지배' 방식과 '절충/협력'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서, 거부된 아동이 인기있는 아동보다 지배 전략은 더 많이, 절충 및 협력 방식은 더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_{32}=-2.753$, $p < .01$; $t_{32}=2.695$, $p < .05$).

4. 세가지 방식으로 측정된 갈등해결방식간의 관계

갈등해결척도에서 친구간에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 아동이 사용한다고 보고한 갈등해결방식, 가상적인 갈등상황에서 아동이 할 것 같다고 보고한 방식, 그리고 실제 친구와의 갈등상황에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동이 실제로 사용한 방식간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Spearma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서로 상응하는 갈등해결방식간의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절충 및 협력의 경우, 갈등해결척도와 가상적 갈등상황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r=.31$, $p < .10$)이 나타났다. 즉 절충 및 협력의 경우 관찰을 통해 살펴본 갈등해결방식과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아동들의 자기 보고로 측정된 두가지 방식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나서, 갈등해결척도에서 자신이 친구와 절충 및 협력 방식을 사용한다고 보고할수록 가상적 갈등상황에서도 절충 및 협

〈표 2〉 세가지 방식으로 측정된 갈등해결방식간의 상관계수

(N=34)

		갈등해결척도				가상적 갈등상황				구조화된 갈등상황				
		회 피	절충/협력	양 보	지 배	공 격	회 피	절충/협력	중재요청	회 피	절충/협력	양 보	지 배	중재요청
갈등 해결 척도	회 피	1.00												
	절충/협력	.29	1.00											
	양 보	.44**	.39*	1.00										
	지 배	.12	.04	.22	1.00									
가상적 갈등 상황	공 격	-.16	-.23	.14	-.02	1.00								
	회 피	-.01	-.09	.04	-.07	.41	1.00							
	절충/협력	-.11	.31+	-.17	-.08	-.19	.32+	1.00						
	중재요청	-.04	.19	-.09	.22	.36*	.06	-.02	1.00					
구조화된 갈등 상황	회 피	.05	.04	.02	.22	.01	.11	.15	.11	1.00				
	절충/협력	-.10	.24	-.11	-.17	.10	.09	.25	.30	-.36*	1.00			
	양 보	.16	.13	-.07	-.30+	-.26	-.06	.20	-.49**	-.12	-.29	1.00		
	지 배	-.05	-.15	-.19	.26	.07	-.22	-.44**	.03	.15	-.73***	-.19	1.00	
	중재요청	.21	-.53***	-.27	.10	.16	.10	-.22	-.08	-.08	-.19	-.06	.10	1.00

+p<.10, *p<.05, **p<.01, ***p<.001 임.

력 방식을 사용할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지배 방식의 경우, 갈등해결척도와 실제 행동 간에는 유의한 상관이나 나타나지 않았으며, 또한 가상적 갈등상황의 경우 측정된 공격적 반응이 다른 측정 방식에서의 지배 방식과 유사하다고 생각되어 다른 측정 방법의 지배 방식과 상관을 비교해본 결과,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회피 방식의 경우, 갈등해결척도와 가상적 갈등상황, 갈등해결척도와 실제 행동, 가상적 갈등상황과 실제 행동 모두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보 방식의 경우에도, 갈등해결척도와 실제 행동간에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갈등상황에서 타인의 중재를 요청하는 방식의 경우도 가상적 갈등상황과 실제 행동간에 서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로 상응하는 갈등해결방식 외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난 갈등해결방식은 다음과 같다. 갈등해결척도의 절충 및 협력 방식은 실제 행동에서의 중재 요청 방식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r = -.53, p < .001$)을 나타냈다. 그리고 가상적 갈등상황에서의 절충 및 협력 반응은 실제 행동에서의 지배 방식과 유의한 부적 상관($r = -.44, p < .01$)을 나타내었다. 즉, 친구간에 갈등이 발생했을 때 절충 및 협력 방식을 사용한다고 보고할수록 실제로 그 친구와 갈등이 발생했을 때에는 타인의 중재를 요청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친구와의 가상적 상황에서 절충 및 협력 방식을 사용할 것이라고 보고할수록 실제 친구와의 갈등상황에서는 지배 방식을 더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갈등해결척도의 지배 방식은 실제 상황에서의 양보 방식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r = -.30, p < .10$)을 보였다. 즉, 갈등해결척도에서 친구와의 갈등상황에서 지배 방식을 사용한다고 보고할수록 아동은 실제 상황에서는 친구에게 덜 양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상적 상황에서의 중재 요청 반응과 실제 친구간 갈등상황에서 양보 방식간에 유의한 부적 상관($r = -.49, p < .01$)이 나타났다. 즉, 친구와의 가상적인 갈등상황에서 타인의 중재를 요청할 것이라고 보고할수록 실제 친구간에 갈등이 발생했을 때에는 양보하기를 더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중심으로 아동의 또래 지위에 따른 갈등해결방식을 갈등해결척도, 가상적 갈등상황, 구조화된 갈등상황별로 논의하고, 이러한 세가지 측정방식간의 관련성에 대해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또래 지위에 따라 갈등해결방식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본 결과, 인기있는 아동이 거부된 아동보다 가상적인 갈등상황에서 회피할 것이라고 보고한 경우가 더 많았다. 그리고 실제 갈등상황에서는 인기있는 아동이 거부된 아동보다 절충 및 협력 방식은 더 많이 사용하였고, 지배 방식은 더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세가지 측정도구를 사용한 결과 모두에서 대체적으로 인기있는 아동이 거부된 아동보다 절충 및 협력 방식은 더 많이 사용하는 반면, 지배 방식은 거부된 아동이 인기있는 아동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또래 지위 및 또래 갈등을 연구한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또래로부터 인기가 없는 아동은 또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공격적이고 통제적인 전략과 비언어적인 저항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반면, 또래로부터 인기가 있는 아동들은 기술적인 언어적 저항 전

략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일관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Putallaz *et al.*, 1995; Rabiner, Lenhart & Lochman, 1990). 따라서 본 연구 결과에서도 인기있는 아동은 언어를 사용하여 친구를 설득하고 의견을 조정해나가려는 절충 및 협력 방식을 거부된 아동보다 더 많이 사용하고, 이에 반해 거부된 아동은 갈등이 발생했을 때 상대 친구를 지배하려는 일종의 통제 전략을 많이 사용했다는 점에서 위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에서 인기있는 아동이 거부된 아동보다 가상적인 갈등상황에서 회피를 할 것이라고 더 많이 보고한 것은 거부된 아동이 일반적으로 또래 갈등 상황에서 회피 방식을 더 많이 선호한다는 선행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이다.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가상적인 갈등상황에서 '회피'가 양보하거나 회피하는 수동적인 반응으로, 양보와 회피 반응이 한 영역으로 측정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 인기있는 아동이 문제를 회피하기보다는 친구에게 양보하는 경향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이 반영되어 회피를 많이 한다는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아동이 친구간에 갈등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갈등해결 방식이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된 결과간에 유사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아동의 자기 보고, 가상적 상황에 대한 면접, 그리고 실제 갈등상황에서 사용한 갈등해결방식간의 상관관계를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결론적으로 절충 및 협력 방식과 지배 방식의 경우 아동들이 한 자기 보고와 실제 관찰을 통해서 나타난 실제 행동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나, 회피, 양보, 중재 요청 방식의 경우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절충 및 협력 방식의 경우 세가지 측정방식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나서, 갈등해결척도와 가상적 상황에서 친구간에 갈등을 절충/협력 방식으로 해결한다고 보고할수록 아동이 실제로 그 친구와의 갈등상황에서도 절충/협력 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배 방식의 경우에도 갈등해결척도와 실제 행동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어서, 갈등해결척도에서 친구간에 갈등이 발생했을 때 지배 방식을 사용한다고 보고할수록 실제 친구와의 갈등상황에서도 지배 방식을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회피 방식과 양보 방식, 그리고 중재 요청 방식의 경우 세가지 측정방법간에 유의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피, 양보, 중재 요청 방식이 아동의 자기 보고와 관찰을 통해 나타난 실제 행동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회피의 경우, 갈등해결척도와 가상적 상황에서 측정된 '회피'와 실제 상황에서 측정된 '회피'가 같은 구인인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연구자들은 갈등이 발생했을 때 회피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건설적인 방법이라기보다는 부정적인 방법이라고 여겨왔다. 이는 본 연구 결과 실제 갈등상황에서는 회피가 절충/협력과 -.36의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난 것으로 미루어보아도, 실제 갈등상황에서 관찰한 결과로는 갈등을 직접 해결하지 않고 피하려는 해결방식이 아동이 직접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는 절충 및 협력 방식과는 상응되지 않는 방식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갈등해결척도와 가상적 갈등상황의 결과를 보면, 갈등해결척도의 경우 회피가 양보 방식과 .44의 유의한 정적 상관, 가상적 갈등상황에서는 회피와 절충/협력이 .32의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는 먼저 가상적 상황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회피'의 범주 안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회피와 양보하는 것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절충/협력 방식과 정적 상관이 나타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갈등해결척도에서 회피와 양보를 측정하는 문항의 내용을 비교해 볼 때 그 내용상 회피와 양보가 그 형태상 구분이 모호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회피 문항('나는 서로 의견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과 양보 문항('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다면 내 생각을 생각에 맞춘다')을 비교해 볼 때 그 의도에서는 차이가 나지만 자신의 의견을 저버린다는 점에서는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친구간에 갈등이 발생했을 때 다른 아이나 교사 등 타인의 중재를 요청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탐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 가상적 갈등상황에서의 중재 요청 반응과 공격적 반응이 .36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 가상적 상황에서의 중재 요청이 실제 관찰상황에서의 양보 반응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실제 상황에서의 중재 요청 반응은 갈등해결척도의 절충/협력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것은 제 삼자에게 중재를 요청함으로써 직접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일종의 문제 해결을 회피하는 소극적인 방법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실제 관찰상황에서 중재 요청 반응이나 가상적 상황에서의 중재 요청 반응과 회피 반응간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뚜렷한 경향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의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 대상의 수가 적어 일반화에 무리가 있다. 그러나 아동들이 지각하거나 보고한 내용과 실제 아동의 행동간의 관련성을 검증해보고자 시도했다는 점에서 학문적인 의의가 있다. 실제 아동이 친하다고 지정한 동일한 아동을 대상으로 갈등해결척도와 가상적인 상황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였고, 그 친구들간에 실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사용한 갈등해결방식을 관찰을 통해 측정하여 그 관련성을 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아동들이 보고한 친구간 갈등해결방식과 실제 친구간에 보인 갈등해결방식을 측정하는 도구에서 측정된 갈등의 심

각성 정도가 차이가 있고, 각 도구의 하위 영역에서 측정하려고 하는 것이 같은 것이었는지는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회피의 경우 양보하기와 회피하기가 같은 하위 영역으로 측정될 수 있고, 중재 요청의 경우에도 회피와 어떻게 조작적으로 구분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추후 연구에서 좀 더 세분화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친한 친구간에 발생한 갈등을 분석하였지만 친한 친구더라도 친구 관계의 질에서는 차이가 있으므로 친구 관계의 질에 따라 실제 갈등 행동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는 추후 연구도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경희(1986). 아동심리학. 서울: 박영사.
- 김송이, 박경자(2001). 또래 지위와 친구 관계에 따른 아동의 갈등 해결 방식. 아동학회지, 22(4), 69-84.
- 배선영(1999). 아동의 친구관계의 질과 갈등해결전략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선진(2000). 학령기 아동의 행동문제와 또래지위 및 친구 관계의 질.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한제인(1994). 아동의 사회측정 지위에 따른 갈등해결전략 사용에 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Chung, T., & Asher, S. R. (1996). Children's goals and strategies in peer conflict situation. *Merrill-Palmer Quarterly*, 42, 125-147.
- Coie, J. D., & Dodge, K. A. (1983). Continuities and changes in children's social status: A five-year longitudinal study. *Merrill-Palmer Quarterly*, 29, 261-282.
- DeHart, G. B. (1999). Conflict and averted conflict in preschoolers' interactions with siblings and friends. In W. A. Collins & B. Laursen (Eds.), *Relationships as developmental contexts* (pp. 281-304). NJ: Lawrence Erlbaum.
- Eisenberg, A. R., & Garvey, C. (1981). Children's use of verbal strategies in resolving conflicts. *Discourse Processes*, 4, 149-170.
- Hartup, W. W., & Laursen, B. (1993). Conflict and context in peer relations. In C. Hart (Ed.), *Children on playgrounds: Research perspectives and applications* (pp. 44-84). Ithaca: SUNY Press.
- Hartup, W. W., Laursen, B., Stewart, M. I., & Eastenson, A. (1988). Conflict and the friendship relations of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59, 1590-1600.
- Hodges, E. V. E., Boivin, M., Vitaro, F., & Bukowski, W. M. (1999). The power of friendship: Protection against an escalating cycle of peer victimiz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5, 94-104.
- Iskandar, N., Laursen, B., Finkelstein, B., & Fredrickson, L. (1995). Conflict resolution among preschool children: The appeal of negotiation in hypothetical disputes. *Early Childhood and Development*, 6(4), 359-376.
- Putallaz, M., Hellstern, L., Sheppard, B. H., Grimes, C. L., & Glodis, K. A. (1995). Conflict, social competence, and gender: Maternal and peer contexts.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6(4), 433-448.
- Rabiner, D. L., Lenhart, L., & Lochman, J. E. (1990). Automatic versus reflective social problem solving in relation to children's sociometric status. *Developmental Psychology*, 26, 1010-1016.
- Rahim, M. A. (1983). A measure of styles of handling interpersonal conflict.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26, 368-376.
- Rose, A. J., & Asher, S. R. (1999). Children's goals and strategies in response to conflict within a friendship. *Developmental Psychology*, 35, 69-79.

(2006년 2월 13일 접수, 2006년 5월 9일 채택)